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舞踊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03-3817-0431

제 9 호 (루게 제 9 호)

주체 9 1 (2 0 0 2) 년 8 월 2 3 일 (금)

민족문화운동을 전 동포적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자!

지난 6 월 23 일 문예동중앙위원들과 간또지방 문예동지부역원들, 여러 문화단체 책임자들, 그리고 문예동 무용경연대회 참가자들과 대중가요작곡현상모집의 입선자들의 참가밑에 《민족문화운동을 전 동포적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기 위한 문예일군들의 모임》이 출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김정수위원장의 보고와 문예동 도쿄지부 김선헌무용부장을 비롯한 4 명의 토론, 총련중앙 허종만책임부의장의 맺음이 있었다.

문예동중앙 김정수위원장은 보고에서 먼저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금강산 가극단이 받아 안은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하해같은 은정이 있어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민족문화활동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벌려올수 있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보고에서는 15 차대회이후에 이룩된 부문별 성과들이 보고되었으며 총련중앙위원회 제 19 기 제 2 차회의 결정을 적극 관철해나갈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결정을 이국땅 일본에서 조선민족을 지키기 위한 중대하면서도 역사적인 결정으로 틀어 쥐고 문예동은 21 세기에 민족성 고수를 위한 민족문화운동을 책임질 사명을 재인식하고 문학예술활동을 새 세대를 포함하는 범동포적인 운동으로 적극 벌려나갈것을 힘 있게 호소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6 월 22 일에 진행된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의 보고와 시상, 대중가요작곡현상모집의 보고와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입선작곡작품 《이쁜 순애》, 《뚝고추가 제일이지》의 2 곡도 발표되었다.

보고에서 제시된 과업

첫째로 《문화교실》, 문화소조를 꾸리고 전동포적인 문화운동을 벌리는데 기여 둘째로 《우리 노래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 셋째로 공연, 전시, 출판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넷째로 피아노협회, 민족무용협회와 같은 조직을 내오고 동포문화인과 동포애호가들을 망라하는 사업을 조직전개 다섯째로 작품창작과 인재육성에 각별한 힘을 집중

토론

《소조사업을 더 잘 펼쳐 민족무용활동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요지)》

—문예동도쿄지부 무용부장 김 선 혜—

민족무용이 힘있는 수단이고 위력한 공간

(조국선생님들이 배워준 민족무용강습의 성과를 널리 과시하여 광범한 동포들에게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줄수 없을까...)

조국의 이름난 무용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한 《조선무용강습회》참가자들의 이 뜨거우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난해 400 여명이 출연한 무용조곡《세월과 더불어》공연을 성과리에 끝내었다.

이 공연과정에 저는 민족무용이 민족성고수의 힘있는 수단이고 무용활동 그 자체가 동포무용애호가들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공간이 된다는것을 깊이 실감하였다.

(이 조선무용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족성을 되찾는 일에 이바지 하자.)

저는 이런 결심을 다져 지난해 7 월부터 문예동도쿄지부 무용부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사람이 안모이는 조직은 죽은 조직

저는 이 기간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무용

애호가들에게 편지를 쓰고 만나보기도 하면서 대렬을 확대해갔으며 주 1 회의 무용소조를 정상화하고 성인조, 청년조, 교원조를 새로 내오게 되었다. 또한 이 반년사이에 8차례의 대내외공연과 새 세대들에게 민족장단과 춤을 배워주는 사업, 도쿄조고무용부에 기자재를 기증하는 사업도 하였다.

조국의 배려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안고

저는 어려서 제 1차설맞이공연의 무대에 올라 어버이수령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영광, 학교를 다닐 때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무용을 배울수 있는 배려, 커서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출연하는 영예를 지녀 그 누구보다도 조국의 사랑과 배려를 담뱃 받아안았다.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고수문제가 절박하게 나서는 오늘 저는 무용소조를 더 잘 운영확대해갈것이며 지역의 《문화교실》, 문예소조 강사로서도 적극 펼쳐나서 광범한 동포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나가겠다.

지역소식

경연대회준비과정에도

대외공연사업을 정열적으로 진행

문예동 효고지부에서는 무용경연대회준비를 다그치는 속에서도 공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다. 지난 4월 21일 《하나가 되자 민족의 마당에서》라는 구호아래 제 13차 나가다마당(長田マダン)에 참가하였다. 출연에 녀맹반맹원들이 《봉산탈춤》을 피로하였으며 민족의상을 입고 독특한 가락으로 통쾌하게 지주를 쫓아내는 탈춤을 보고 관객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또한 5월 16일에는 10년 이상 련속 참가하고 있는 神戸祭 花舞台에 녀맹반이 《사당춤》, 조청반이 《패랭이춤》을 피로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김행숙통신원이 냄)



열기찬 첫 무용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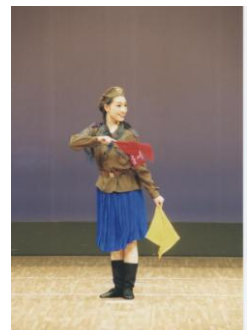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 걸쳐 도쿄 サンパル荒川에서 첫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경연에는 7 지부가 참가였으며 그중 독무 16 작품, 중무 9 작품, 군무 8 작품이 발표되었다.

문예동중앙 현계광무용부장은 강평에서 이번 경연대회는 조국의 초빙강사에 의한 3 번에 걸친 《조선무용강습회》와 작년에 상영한 3 개소, 5 번에 걸친 무용조곡 《세월과 더불어》 공연과정에 이룩된 각 지역 문예동지부들의 성과가 남김없이 발표된 경연이었다고 보고하면서 우리의 무용운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대중적으로 그 수준을 계속 끌어 올림으로써 재일동포사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족성문제를 푸는데서 문예동맹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경연대회성적이 발표되었다.

경연 성적

단체상 문예동 도쿄지부

	독 무	중 무	군 무
1 등	리순화 《소고춤》 문예동 후꾸오카지부	《소고춤》 문예동 효고지부	《조국의 진달래》 문예동 도쿄지부
2 등	리명향 《나의 초소》 문예동 도쿄지부	《금수강산 좋을씨구》 문예동 오사카지부	《채방울춤》 문예동 도카이지부
3 등	윤마유 《장고춤》 문예동 도카이지부	《소고춤》 문예동 도쿄지부	《채방울춤》 문예동 효고지부



현재지식

로동계급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약동적인 무용(요지)

— 독무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에 대하여 —

주 문 결

무용작품에 이야기거리가 선명하게 안겨오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무용예술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이야기거리가 선명하게 안겨오도록 무용이 창작되어야 거기에 반영된 생활이 생동하게 안겨오게 되고 따라서 주제사상이 명백해질수 있다.

무용작품에서 생동한 생활과 높은 사상성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반영된다. 따라서 무용작품을 이야기거리가 선명하게 안겨오도록 창작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무용예술창조에서 나서는 근본적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는 한번 보고 인차 그 내용과 사상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작품의 첫 단락에서 해당작품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수법으로 전제를 주고 둘째 단락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꽃피워나가는 주인공들의 영예와 긍지, 기쁨을 노래하고있으며 셋째 단락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강조해주고 있다. 작품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명백하게 짜여져 있으며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때문에 사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이야기내용과 무용물동을 밀착시킬수 있는 조건으로 되고있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의 다른 하나의 성과는 해당작품에 표현된 춤가락과 무용동작이 이야기거리가 선명하게 안겨오도록 창작된 점이다.

무용예술의 묘사대상으로 되는 현실생활은 무한히 다양하며 인간들의 성격도 각이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은 매 작품의 이야기에 맞는 새로운 춤가락과 무용동작을 탐구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는 춤가락과 무용동작들만 보아도 이야기가 선명하게 창작됨으로써 작품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섬세하게 표현해주고있다. 패기와 열정에 넘친 약동적인 물동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물동의 결합, 박력있는 손목동작 등 특징적인 동작들은 작품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 (다음호에 이음)

무용자료안내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1〉
비데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조선무용기초동작 1,2 단계〉
비데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세월과 더불어 및 무용곡〉
CD판음악 ¥4,500-

제3차 무용지도원강습을 진행합니다!

문예동중앙 무용부는 맹원들의 기술기량을 계속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예동지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본지방	서일본지방
강습 내용	- 조선무용기초동작 제2단계 복습/독무 《소고춤》 전습(소고는 각자 지참) ※ 무용경연대회에서 후꾸오까지부 리순화동무가 춤춘 작품목화를 예습 해서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도쿄조선중고급학교	愛知県名古屋千種区豊年町 8-23 コリアンスクール 3F
날자	2002년 9월 22일(토) 23일(일)	2002년 9월 14일(토) 15일(일)
시간	1일째 : 오후 1:30 ~6:00 / 2일째 :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	8월 30일(금) 마감	
문의	각 지역 문예동지부	